

2018년 3월 4일 “너는 나를 따르라”(마 8:18-22; 16:24)

<도입>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날 교회로, 또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나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 기준에 입각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1] 예수님의 연약한 조건과 처지

예수님은 평생 가난했습니다. 사회, 종교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만한 힘 없는 하류층이었으며 세상에서 높은 힘을 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트층인 서기관(율법사)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난한 존재이며 서기관이 그리던 민속 메시아관에 합당한 그리스도가 아님을 시사하십니다(20 절).

또, 제자(무리) 중 하나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묻습니다(21 절). 이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영적으로)이 죽은 자들(육신)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를 따를 때 먼저 (1) 알아야 할 것과 (2)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음(우선순위)을 말합니다. 이것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1)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했던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권력자처럼 군림하지 않으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류층으로 살다 십자가에 힘없이 죽임 당한 분을 따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과 연약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2]에서).

(2) 우선순위 정립에 관하여는 다음 주일에 다룹니다.

[2] 이 땅의 권력과 주님의 연약함과 참 능력

<권력> 누구나 권력(힘)을 향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부패시켜서 감사대신 원한을, 칭찬대신 비판을, 용서대신 복수를, 치유대신 상처를, 동정심대신 이감을, 협력대신 경쟁을, 사랑대신 두려움을 종종 일으킵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에서 반사적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주목과 보상과 대우를 잘 받고 있는가 입니다. 이 욕구는 채워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남보다 나아야(높아야)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결국은 관계를 끊는 한이 있어도 자신을 위한 힘을 구축하려고 애쓰게 됩니다(삶의 방향성 실종).

그 결과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사람과 친밀해질 이유를 못 느낍니다. 힘이 관계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권력자는 지배하고 강제로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우러러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권력자와도 다릅니다.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부러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 하나님은 세상이 힘을 향해 질주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세상 방식의 실행행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무력함(가난함과 연약함)을 통해 악의 권력을 없애기로 하신 것입니다. 악의 최종 무기는 죽음인데 이것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예수님 부활).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몸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의 탄생은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또 부모와 주변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삶의 과정을 거치셨고 결국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관계 회복은 **무력함을 통해서** 이를 수 있는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뿐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사랑의 집으로 가는 문입니다.

<능력> 여기서 함정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고후 12:9)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약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연약함의 신학이 굴복과 자학과 패배로 이끌어준다는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병도 안 고치고, 거친 성격과 깨진 심리 상태를 연약하다 하면서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 영적인 것처럼 여기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주님의 연약함을 배우고 따르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탁하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약함 안에서 모든 것을 진리의 모습으로 변혁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연약함 안에만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참 능력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참 능력은 친히 연약함을 선택하고 살며 아버지를 의탁할 때 참 하늘의 통로가 열려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능력은 치유하고, 생명 주고, 화해시키고, 참 공동체를 창조하였습니다. 부러워하며 오르려는 세상 권력이 일으키는 분열과 두려움의 결과와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3]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연약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에겐 이것이 누구보다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동기부여와 소명을 수행할 참 사랑의 동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실천을 권면합니다. 나보다 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지체를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훈련해 보십시오. 이때, 어떠한 사랑의 역사가 임하는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 진정한 참 능력을 얻는 길은 자신의 가난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그러면 나의 가난은 위로부터 오는 치유와 사랑의 복이 내려지는 문을 분명히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1. 주님이 평생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무력하게 살고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또한 오늘 나눔에 비추어 보면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2. 주님의 연약함(죽음까지)이 이루신 구원의 과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만일 주님이 세상 권력자들 차원에서 가장 유력한 분이었다면 이런 구원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3. 세상이 추구하는 힘(권력, 명예, 재력, 학력, 재능)의 유혹에 나는 얼마나 저항하고 있습니까? 왜 저항해야 할까요? 일부러 모든 조건들을 폐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어 봅시다.